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나서

이환주 남원시장, 국회 방문 설립 필요성 확산 공청회 개최 건의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시한표를 맞추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2022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신경민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방문해 법률(안)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으며, 김동규 부시장도 전복도를 방문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확보 추진상황, 설립부지 예산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를 위해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사진은 이환주 남원시장.

요청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말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대학원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

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복도, 남원시 실무팀은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과 국회 이용호 의원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회 '의료취약지 사례 중심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에 개교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옛 서남대 의대정원 40명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발맞춰 나후진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19년도 지자체 평가 전국 군수 중 1위

임실군, 행안부 후원 지방자치학회 단체장 역량 평가

심민 임실군수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단체장 역량 주민만족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토론했다.

지난 22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심민 군수는 82개 군 단위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군수가 주민만족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데는 효심정행이 주효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심 군수가 고령인구가 32%에 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효심군수'로 불릴 만큼 고령 주민을 배려한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심 군수의 평소 신념인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다.

대표정책으로는 목욕탕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13매를 지급하고, 단돈 1000원이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버스단일요금제를 도입한 점이 소개됐다.

실제 심 군수는 효심정책으로 12개 읍면 중 작은 목욕탕이 없는 6개 읍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1500원만 주면 목욕할 수 있도록 연간 13매의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도입했으며, 만 70세 이상 고령영세농을 위한 못자리 설치비용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 계층들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주민밀착형 배려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심 군수는 "늘 주민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했는데 주민들의 만족을 주시고, 호응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남원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2019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전년 대비 195%로 증액 확보한 예산 10억95백만원을 투입해 주거급여수급자 19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주택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공사 등),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 옥실, 주방개량공사 등)로 보수범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광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1억1500만원 확보

건강장수 힐링거점 선도지역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비전달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19년 고령화대비 지자체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 사업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 건강장수사업소 김규완 장수진흥계장은 "노후준비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저비용 고효율사회 선진모델을 확립하고 건강장수 힐링의 메카로 순창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준비교육은 골드룩, 인생대학, 미니메드 스킨 등 3박4일과정과 1박2

일 관계개선과정이 있으며, 당초치후 프로젝트, 당뇨밥상 배달사업, 군민건강교육, 바른먹거리 당뇨학교, 전국당뇨캠프, 청소년 체험교육 등도 진행한 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장수진흥계로 전화하거나 건강장수연구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 최종점검

임실군이 중점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예비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임실군과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회의회는 지난 22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추진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사업계획수립 2차 보고회를 마무리하고, 전북도 및 농식품부 심사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리모델링 ▲로컬푸드 스테이션 연계

유통센터 구축 ▲임실(치즈)캐페 대도시권 확대 ▲찾아가는 청년상단 등 10개 사업이다. 여기에 공동체 인력지원과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연계 후속 사업도 포함됐다.

공동체 사업과 각 분야별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통망을 활용한 농가공품 연계 판매 등이 적극 반영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통합사례관리 솔루션회의 개최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22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10개 기관 현장 실무자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상황 해결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개최

했다.

통합사례관리 솔루션회의란 고위험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담당자들로 특별하게 구성되었으며, 문제 해결 및 필요한 서

비스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회의이다.

가출한 위기 청소년의 복합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처방안과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치매 돌봄 사각지대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남원시, 치매 돌봄 사각지대 고위험군 전수조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치매 돌봄 사각지대 고위험군 5천백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원시 치매환자 추정수는 2,647명이지만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654명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1,000여명의 환자를 발견해 단계별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보건사업담당자 124명에게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지해주는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3월 29일에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원 만들기 위한 치매안심 선포식과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